

SM C&C LETTER

2022.05 | No.151

이/번/달 즐/거/리

- COVER STORY** | WORK, WALK, WORK! SM C&C의 첫 플로깅 현장 따라가봤SM!
- 광고 사업** |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당연하지 않다
- STUDIO** | 순한맛 예능인데 묘하게 중독된다!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 매니지먼트** | "좋은 취미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혜성·장예원·김민아·박선영의 OFF TIME
- 여행 사업** | Hawaii? Why not! 허니문 여행, 이제는 하와이로 떠나요!
- SM PICK** |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 새로운 식문화를 이끈 배달앱
- SM INSIDE** | Wonderful Radio -SM C&C 편-

COVER STORY



WORK, WALK, WORK! SM C&C의 첫 플로깅 현장 따라가봤SM!

SM C&C가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친환경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로 했습니다. SM C&C 사옥 근처에 위치한 난지천공원과 서울숲공원에서 <위드숲 플로깅> 행사를 진행한 건데요. SM C&C는 이번 플로깅을 시작으로 선한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SM C&C 구성원들이 지구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을 따라가봤습니다.

[+ 자세히 보기](#)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당연하지 않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를 출범한 최초 브랜드 '코빗(korbit)'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선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고의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최초의 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코빗의 굳은 심지를 완벽하게 담아낸 '메이커 인센티브' 편에 담긴 크리에이티브를 공개합니다. 마동석과 주현영의 완벽한 호흡도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 자세히 보기](#)

《 SM On Air 》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피부에 직접 닿는 무표백' 캠페인



KB증권
'투자를 똑딱! 깨비증권' 캠페인



네네치킨
코쟁마요 '으른의 맛. 으른의 치킨' 캠페인 (아이편)



AIA생명
'인생에 꼭 필요한 든든튼 찬스' 캠페인

STUDIO



순한 맛 예능인데 묘하게 중독된다!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볼 것과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SMC&C STUDIO 부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일명 '진순이'(진라면 순한맛) 재질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EXO의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남해 편입니다. CBX 일본 편, 가오슝&컨딩 편에 이어 무려 3년 만에 시즌 3로 돌아온 '역사세'의 관전 포인트 TOP 3를 공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MANAGEMENT

“좋은 취미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혜성·장예원·김민아·박선영의 OFF TIME

평생을 가져갈 취미 하나는 남은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밀천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평생을 가져갈 취미 하나를 일찍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취미에 몰입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SMC&C 여자 예능인 이혜성, 장예원, 김민아, 박선영의 즐거운 취미생활을 공개합니다. 베이킹, 골프,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농구까지 다채로운 그녀들의 OFF TIME을 만나보세요.

[+자세히 보기](#)

TRAVEL



Hawaii? Why not! 허니문 여행, 이제는 하와이로 떠나요!

본격적인 봄 웨딩 시즌이 다가오면서 웨딩업계와 함께 허니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돼 신혼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늘었는데요. 투어익스프레스팀에도 허니문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화된 상품성 여행이 아닌 맞춤형 여행에 강점을 갖고 있는 투어익스프레스팀을 통해 실제 예약이 진행된 허니문 사례들을 담당자가 직접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heypoll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 1탄

새로운 식문화
배달의민족 서비스 편

편리함은 기본,
생활 속 문화로
자리잡다

SM PICK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 새로운 식문화를 이끈 배달앱

SM C&C가 운영하는 놀면서 하는 초간단 앱테크 플랫폼 '헤이폴(heypoll)'이 선정한 이달의 앱이 5월호부터 12월호까지 소개됩니다. 광고사업부문 킬리언(Tillion)팀이 매달 MZ세대가 주목하는 앱을 꼽아 해당 앱의 특징, 주요 타깃층, 헤이폴이 분석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헤이폴이 선택한 이달의 앱은 새로운 식문화를 가져다 준 '배달의민족'입니다.

[+자세히 보기](#)



Wonderful Radio -SM C&C 편-

'감사합니다'라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말하고 쓰시나요?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말의 농도가 진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5월을 맞아 이 다섯 글자에 진심을 짝짝 눌러 담았던 순간들을 SM C&C 구성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채택됐는지, 사연의 주인공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2년 1분기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박태방(오늘) 신국희(CI1팀) 이장(CM1팀) 이하늘(TC1팀)
 박상기(연기자매니지먼트3팀) 유현채(MC매니지먼트1팀) 송유리(콘텐츠기획제작팀)
 허아빈(콘텐츠기획제작팀) 박정희(재무팀) 조승혜(경영기획팀) 김은성(법인영업팀)

[+ 자세히 보기](#)



서울숲공원에서 플로깅을 하는 SM C&C 직원들 모습

글. PR팀 이지혜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가치소비 등이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면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중요시하는 ‘ESG 경영’**을 도입·강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SM C&C 도 리틀버드 머플러 기부를 시작으로 ESG 경영, 착한기업과 같이 선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엔 4월 지구의 달을 맞아 **SM C&C 사육이 있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친환경 가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위드숲 플로깅> 행사를 통해서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친환경 가치도 전달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일석 삼조의 행사를 준비한 것이죠.**

바닥에 뒹굴고 있는 일회용 컵부터 양심과 함께 버려진 담배꽂초, 바람에 실려 날아온 비닐봉지까지. 지난 4월 28일(목)~29일(금) 이틀간 출퇴근길에 무심코 지나쳤던 쓰레기들을 주웠는데요. **SM C&C 식구들이 지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을 소개합니다!**

"일하다 잠깐 환경보호하지 않을까요? <WORK WALK WORK 위드숲 플로깅>



플로깅(Plogging)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입니다.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줍깅(줍다+조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운동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과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국 명산을 오르면서 하는 '등산 플로깅'부터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 밀려든 쓰레기를 줍는 '서핑 플로깅', 출근길에 보이는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버리는 '출퇴근 플로깅'까지 취미생활에 봉사를 살짝 곁들이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드숲 플로깅> 행사 역시 점심을 먹고 가볍게 산책하며 쓰레기를 주울 수 있도록 SM C&C 상암 사옥, 성수 사옥 인근 난지천공원과 서울숲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나를 위해,
조금 더 깨끗해지는 지구를 위해 참여했어요! "

“지구에 도움이 된 것 같아 참여한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바쁜 하루 속 잠깐의 휴식으로 찰나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고르라면 점심시간을 꼽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소중한 점심시간도 반납하게 만든 플로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플로깅을 한 직원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위드숲 플로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위드숲 플로깅>에 참여한 콘텐츠사업팀 김준형, 박주리, 유지우 팀원의 모습



서울숲공원에서 플로깅 중인 남궁철 대표(왼쪽)와 여행사업부문 Convergence팀 황두현 팀장(오른쪽)의 모습

#더 나은 지구와 우리 회사 동네를 위해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했습니다. 특별한 리워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업무 일과 중에 봉사활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우려와 달리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드숲 플로깅>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플로깅을 마치고 분리수거를 하는 직원들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콘텐츠사업팀 유지우 팀원은 “일하는 도중에 환경을 생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 또 좋은 캠페인이 열린다면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플로깅 행사를 처음 제안한 남궁철 대표도 “플로깅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직원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왼쪽) 난지천공원 (오른쪽) 서울숲공원에서 플로깅을 하는 SM C&C 직원들

#쓰레기를 찾아 공원을 어슬렁거리는 SM 인을 본 적이 있는가

플로깅을 마친 직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후기를 남겼습니다. **“쓰레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난지천공원과 서울숲공원은 아침 일찍부터 일정한 시간마다 공원 관리자들이 쓰레기를 주우시는데요. 플로깅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미 쓰레기 대부분이 사라지고 난 뒤였죠.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손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겠다는 열망 하나로 공원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였습니다.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든 채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쓰레기를 찾으려 바닥만 보고 걷는 건 기본이고 우연히 동료들을 마주치면 안부 인사보다는 쓰레기가 많은 장소를 공유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 • •



(왼쪽) 플로깅 키트와 점심 키트가 있는 데스크 모습 (오른쪽) 대여한 돛자리 위에서 SM C&C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

#날씨 좋은 날, 우리 한강 어때요?

플로깅을 마친 직원들의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기 위해 친환경 도시락과 돛자리도 제공했습니다. 봄기운 물씬 나는 공원에서 돛자리를 펴고 동료들과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으니, 마치 학창 시절 체육대회나 봄소풍에 온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바쁜 업무시간 속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 같았다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었죠. 사실 이번 <위드숲 플로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던 터라 직원들에게 ‘다음 플로깅 행사는 언제, 어디에서 열렸으면 하는지’를 슬쩍 물어봤는데요. 제일 많이 꼽힌 곳은 단연코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이 가까워서였을까요? 따뜻한 날은 산책하기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플로깅이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만큼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플로깅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쓰레기를 줍고 싶다고 전하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 외에도 공원을 넘어서 회사 근처 골목골목까지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싶거나 여름에는 해변에서,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산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플로깅을 한다면 어디서 하고 싶으신가요?
의견을 주시면 다음 플로깅 장소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짱긱)



▲ 플로깅 현장스케치 영상

친환경, 무겁고 어려울 것 같지만
SM C&C 식구들이 플로깅을 통해 경험한 환경보호는
즐거운 나들이였고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시간이었고
잠깐 짬을 내서 한 운동이었습니다.

플로깅은 날씨나 시간,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혼자 또는 여럿이
집 앞이나 출퇴근길, 산책하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SM C&C는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위드숲 플로깅>을 시작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구를 향한 걸음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퇴근 후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지구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글. 광고사업 Unit C11 팀 정성준

“코빗은 당연하지 않다”

대세가 된 가상자산 거래소

그 최초의 기록 코빗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로 꼽히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중계 중간에 등장하는 광고도 큰 관심을 모읍니다. 시청자 수가 대략 1 억 명에 이르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앞다퉀 송출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슈퍼볼 광고에서 단연 화제가 된 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입니다.** 광고에는 비트코인 15 달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DVD 스크린 세이버를 패러디해 아무런 카피도 출연진도 없이 QR 코드만 떠다니는 파격적이고 주목도 높은 크리에이티브로 코인베이스 앱의 신규 다운로드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야로 손꼽히던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슈퍼볼 광고 공세를 통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빗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를 출범한 ‘최초’ 브랜드입니다. 첫사랑, 첫키스 같이 ‘처음’이 중요한 것은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초 브랜드’라는 타이틀은 기업의 자부심을 넘어 선점 효과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초의 지위와 책임은 무거운 수밖에 없습니다. 코빗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선구자(Pioneer)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고의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최초의 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코빗의 굳은 심지를 보다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메이커 인센티브' 편 스틸 컷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코빗은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전례가 없는 프로모션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메이커 인센티브'**입니다. 메이커 거래의 수수료가 무료임과 동시에 거래가 체결될 경우 일정 %의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늘려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고 선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코빗의 의지가 담겨있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코빗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기존 유저의 브랜드 스위칭(Switching)과 신규 유저의 유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표**였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신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동안 코빗이 구축해오던 고객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혜택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는 이들에게 ‘메이커 인센티브’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구성해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보통의 광고에서 벗어나야 했죠.** 광고 속에서 ‘메이커 인센티브’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심리적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코빗만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
그건 당연한 거야

“
정말 당연한 걸까?

우리는 때때로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관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 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엔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저 변명인 거죠.

이번 ‘메이커 인센티브’ 캠페인은 **우리가 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수수료 제도에 대해 화두를 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수수료에 대해 코빗이 묻고 타성에 젖은 수많은 거래자들이 답하는 형식의 스토리를 기획했습니다. 대신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상투적인 통념을 꼬집으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유쾌한 화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종결형을 ‘당연하지 않아요?’, ‘네 당연하지 않아요’와 같은 의문형과 평서형으로 바꿔 ‘당연하지 않다’는 우리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빗을 대표해 질문하는 인물’과 ‘가상자산 거래자들을 대표해 답하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코빗을 대표하는 인물**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이미지에 걸맞은 리더십 있는 빅모델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은 다양한 거래자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인 다(多)역을 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 찾았습니다. **코빗 대표로는 카리스마 있는 반전매력을 소유한 마동석**이, **거래자 대표로는 최근 ‘SNL 코리아’에서 활약하며 MZ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는 주현영**을 발탁했습니다. 특히 주현영의 경우 ‘인턴 기자’, ‘일진 여고생’ 등 부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인 다역에 적합했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실제 촬영장에서 두 배우 모두 각자의 역할에 몰입한 건 물론, 서로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기획 및 제작 의도에 알맞은 완벽한 광고를 만들어냈거든요.



주현영의 다양한 부캐들, 배경 장치로 활용된 가상자산 밈(Meme)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온라인 밈(Meme) 문화

또 하나의 재미 요소로서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에서 떠도는 온라인 밈을 광고 구석구석 배치했습니다. 밈(Meme)이란 온라인상에서 평범했던 콘텐츠가 유희적인 동기로 유저들에 의해 2차 창작물로 제작되거나 패러디되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자발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문화적 현상, 또는 놀이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진부한 표현들이 새로운 유행어로 변화해 온라인을 넘어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한편 특정 카테고리에서 생산된 밈은 해당 집단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이 지점을 주목해 기존 사용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영차-영차’, ‘결무새’, ‘시바견’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밈을 곳곳에 숨겼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쟁사 고객을 스위칭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로 구전효과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 일반 소비자들에게 너무 배타적이지 않도록 밈을 대놓고 보여주기보다는 배경 장치적 요소 정도로 적당히 활용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코빗의 선언

한때 각종 토론의 주제로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수원(水源)이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강물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떠했든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상자산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거대한 물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코빗이 선도했던, 그리고 앞으로 이끌고 나갈 가상자산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최초의 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혜택'을 통해 앞장서서 '최초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코빗이 외치는 '당연하지 않아요'란 선언이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빗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코빗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글. STUDIO 부문 콘텐츠사업팀 박민서

3 년 만에 돌아오는 ‘엑사세’ 시즌 3, 관전 포인트 3 개는?

볼 것과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SM C&C STUDIO 부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일명 ‘진순이’* 재질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데뷔 10 주년을 맞이한 EXO 의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이하 ‘엑사세’) 세 번째 시즌, 남해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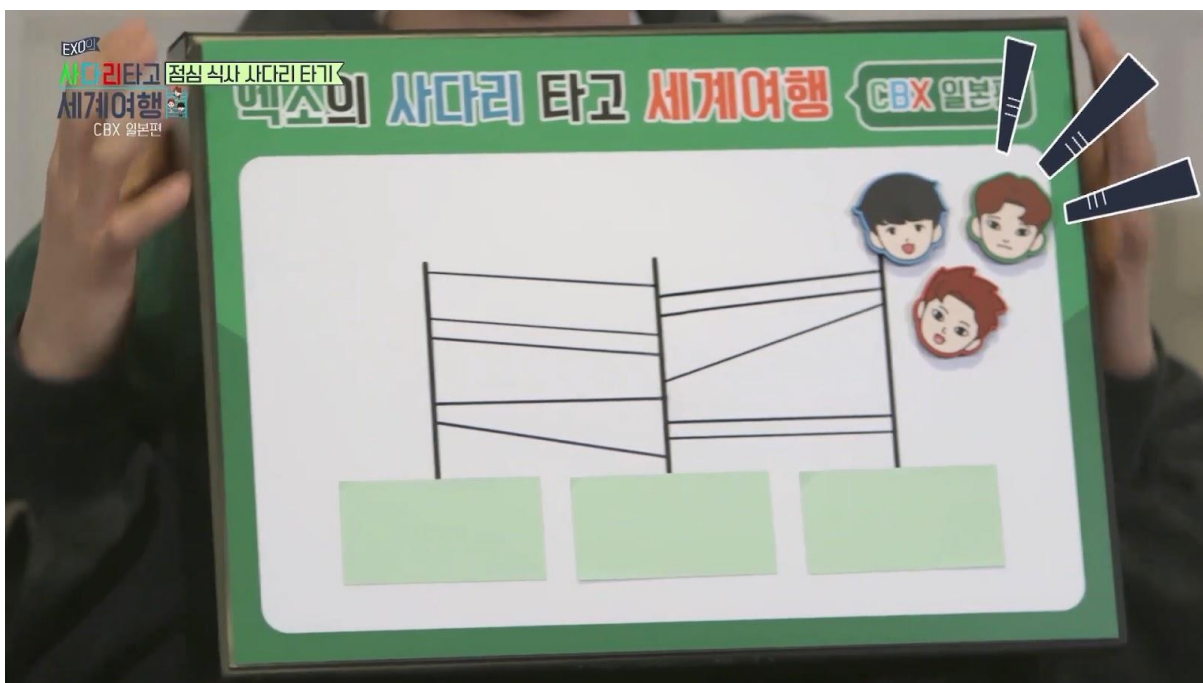
‘엑사세’는 지난 2018 년 ‘첸벡시(CBX) 일본편’을 시작으로 **엑소의 복불복 여행기를 담은 리얼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2019 년 공개된 시즌 2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가오슝&컨딩 편’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멤버들의 입대와 코로나 19 로 한동안 시청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려 3 년 만에 시즌 3 가 남해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관전 포인트 3 개는 무엇일까요?**

*‘진라면 순한 맛’의 줄임말.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다는 뜻과 함께, 말 그대로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 . .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이 뭐죠?

말 그대로, **EXO가 사다리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식이나 커피를 내기 위해 속속 그리는 그 사다리, 맞습니다. 가로줄 하나에 그날의 식사와 숙소, 이동수단 등 여행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멤버들은 예민하고 치열하게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청자조차도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연하는 멤버들만큼 떨리는 마음인데요. **내가 응원하는 멤버의 앞날이 순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즐겁게 됩니다.**



시즌 1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CBX 일본 편> 중. 출처=SM C&C

‘엑사세’의 탄생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EXO의 첸, 백현, 시우민이 함께 일본의 돗토리현으로 떠난 것이 엑사세의 시작인데요. **일본의 소도시에서 소소하게 즐긴 세 멤버의 여행은 팬들 사이에서 힐링 여행이자 손민수* 하고 싶은 여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따라한다는 뜻.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의 등장인물로 주인공 홍설을 따라하는 캐릭터 손민수에서 유래



시즌 1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CBX 일본 편> 中. 출처=SM C&C

그리고 시즌 1의 반응에 힘 입어 약 8개월 만에 시즌 2가 제작됐습니다. **EXO 멤버 8명이 모두 모여 대만의 가오슝과 컨딩으로 떠났는데요.** 시즌 1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힐링과 액티비티를 넘나드는 재미를 보여줬습니다. **쉬지 않고 수다를 떨거나 게임을 하며 끈끈한 팀워크와 남다른 케미를 자랑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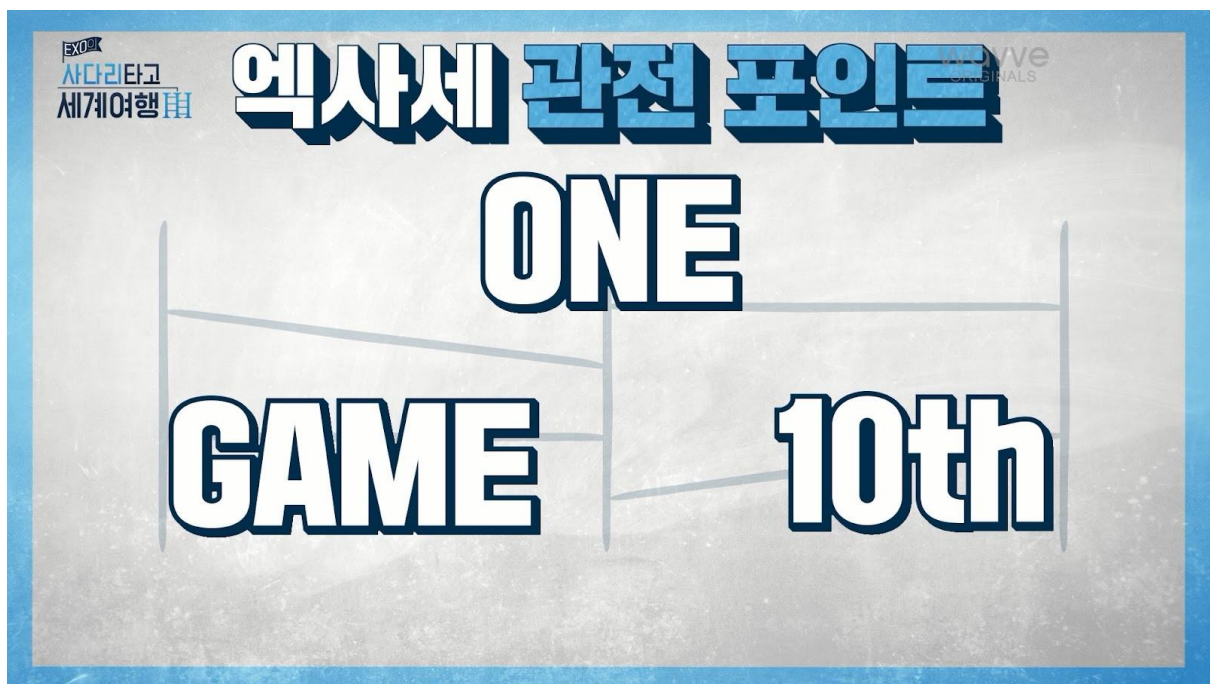
시즌 2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가오슝&컨딩 편> 中. 출처=SM C&C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몇 명의 멤버는 군대를 다녀왔고 몇 명의 멤버는 군복무를 하는 아이돌 ‘군백기’ 기간을 거쳤습니다. **8명이 모두 모여 오디오와 화면을 가득 채웠던 때와는 달리, 군백기를 지키고 있는 5명이 단출하게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사다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진순이 취향이 아니어도 일단 잡봐! <엑사세 3> 관전 포인트 3 개는?

EXO 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챘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멤버들의 부재를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상했습니다. 이번 <엑사세 3>는 잔잔한 '진순이' 재질의 힐링 여행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순한 것은 순한대로의 매력이 있는 법이죠. 세상 얄전해 보이는 멤버들이 떠나는 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엉뚱하고, 심지어 광기 어리기까지 했는데요. <엑사세 3>의 관전 포인트 3 개를 소개합니다.



[키워드 1] ONE

왕년에 ‘으르렁’ 좀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구호 역시 낯설지 않을 겁니다. “**WE ARE ONE!**” 말 그대로 군백기 동안 개인 활동 위주로 스케줄을 소화하던 멤버들이 ‘EXO’라는 이름 아래 하나(ONE)로 뭉쳤습니다. 다섯 명이 한 마음으로 떠난 첫 남해 여행기를 이번 <엑사세 3>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즌 3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中. 출처=SM C&C

[키워드 2] GAME

시즌 2에서 쉬지 않고 게임만 하던 EXO는 3년이 지나 게임에 더 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임 앞에서는 사이좋던 형도, 동생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승부에만 직진하는 EXO의 모습을 <엑사세 3>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즌 3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中. 출처=SM C&C

[키워드 3] 10th

지난 4 월 8 일은 EXO 의 데뷔 10 주년이자 <엑사세 3>의 첫 방영일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제작진은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는 10 명의 유명한 셀럽들이 10 가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10 배는 더 짜릿하고 재밌어진 내용과 함께 10 주년 분위기에 탑승해 감동까지 모두 잡았다는 평입니다.



시즌 3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中. 출처=SM C&C



▲ 시즌 3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메인티저



순한데 묘하게 자극적인 맛, EXO #캐릭터 네 컷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계기 중 하나가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일 것 같은데요. <엑사세 3>에서의 EXO 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EXO 의 이미지는 ‘이 멤버는 춤을 잘 추고, 이 멤버는 굉장한 동안이고, 이 멤버는 연기를 잘하고...’ 정도일텐데요. 그러나 <엑사세 3>를 보면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될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손가락 아프게 이 사람들의 매력에 대해 설명한들 스틸 이미지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할 테니 순한 외모 뒤에 감춰둔 마라맛의 캐릭터를 멤버별 ‘인생 네컷’이 아닌 ‘캐릭터 네컷’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알고보면 세상 웃긴 EXO 캐릭터 보러 #가보자고

1. 수호

#리더 #김준 cotton #엑젤옷



2. 시우민

#4 차원영아 #말내 #주당



3. 카이

#예능풀잎 #예능스파르타 #노잼못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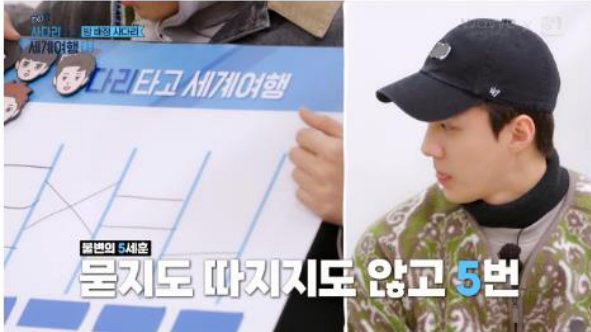
4. 디오

#도른자 #알모경 #애교있디오 #감사인사하디오



5. 세훈

#5 세훈 #5 번집착 #5 디오지분 5 백프로 #형들이업어키울만한귀여움



▲ 시즌 3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캐릭터 티저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기에 <엑사세 3> 같은 순한맛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것 아닐까요?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을 시작으로 <엑사세> 시리즈 정주행 해보기를 추천 드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치고 들어오는 '세상 무해한 재미'에 빠지게 될테니까요.



이번 시즌도 역시 레전드, 확실합니다! 믿고 보는 STUDIO 부문 예능, 아시죠? 출처=SM C&C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전 시즌은 웨이브(wavve)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SM C&C STUDIO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볼 수도 있으니 수시로 스트리밍 스케줄 체크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시리즈 정주행 하기]

엑사세 1 url: <https://bit.ly/3skGDpB>

엑사세 2 url: <https://bit.ly/3OHcdY2>

엑사세 3 url: <https://bit.ly/3jdav26>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남해 편> 클립 모아보기]

엑사세 3 클립 재생목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lGmaN5ayWJfU1UsCt9hrK9oay04JZj2>



글. 매니지먼트부문 언론홍보실 이현지

SM C&C 여자 예능인들의 색다른 힐링법을 소개합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단조로워진 일상에 색다른 취미로 다채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생을 가져갈 취미 하나는 남은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밀천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평생을 가져갈 취미 하나를 일찍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취미에 몰입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SM C&C 여자 예능인 **이혜성, 장예원, 김민아, 박선영**의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공개합니다.

이혜성_소문난 빵순이의 베이킹 실력



베이킹이 취미인 이혜성. 출처=이혜성 SNS

‘베이킹과 빵집 투어’의 주인공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이혜성의 빵 사랑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며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별명이 ‘**빵순이**’일 정도로 **빵에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진 이혜성**은 SNS에 업로드 한 직접 만든 빵들로 남다른 베이킹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혜성이 직접 만든 빵들. 출처=이혜성 SNS

이혜성은 사워도우, 통밤식빵, 크루아상, 프레첼 등 어떤 종류의 빵도 척척 만들어내는 금손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지난해 5 월에는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덕업일치의 꿈을 이뤘습니다. 3 번째 도전 끝에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혜성은 “그 어떤 시험보다 소중한 자격증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맛있는 빵을 굽고 부지런히 빵 투어를 다니면서 진정한 빵순이로 거듭나겠다”는 귀여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혜성. 출처=이혜성 SNS

이혜성의 빵 사랑은 ‘빵집투어’를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이혜성의 유튜브 채널 ‘혜성이’에는 전국의 빵 맛집 소개부터 샌프란시스코 유명 빵집의 빵과 굿즈를 리뷰하는 일명 ‘빵박싱’ 영상까지 **다채로운 빵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이혜성은 높은 텐션과 열정으로 빵 전문 지식을 쏟아냅니다.



빵을 리뷰하는 이혜성. 출처=유튜브 ‘혜성이’




tvN '온앤오프'에 출연한 이해성. 출처=tvN '온앤오프'

한 방송을 통해 “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은 이해성은 “사람을 좋아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좋아하게 되듯 빵도 그렇다”며 “빵을 보면 설레고 먹을 때면 행복해지며 아침에 눈 뜨면 생각이 난다”고 답했는데요.

좋아하는 빵을 찾아다니고 직접 만들면서 자신만의 취미를 오롯이 즐기고 있는 이해성. 정성스레 만든 빵을 주변에 선물하며 본인만의 애정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빵만큼 포근한 마음씨를 가진 이해성의 ‘빵 여정’에 더욱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 이해성의 다채로운 활약은 tvN ‘벌거벗은 세계사’, 유튜브 ‘발품대신’ 등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해성 프로필 ▼

 <p>SM CULTURE & CON</p>	<p>SM Culture&Contents</p> <p>SM Culture&Contents는 연기자 MC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예능/TV프로그램 제작사업, 종합광고대행 사업, MICE, 호텔예약 등의 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p> <p>www.smcultureandcontents.com</p>
--	--



장예원 "내 꿈은 골프왕!"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골프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SM C&C 아티스트들도 골프 트렌드 대열에 합류하며 골프 열풍에 동참했는데요.



골프가 취미인 장예원. 출처=장예원 SNS

장예원의 골프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골프를 배우다가 그만둔 뒤 성인이 되어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는 그는 '골프왕'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며 골프에 대한 무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장예원의 개인 SNS 를 빼곡히 채운 라운딩 사진들에서 그녀의 골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드 위의 장예원. 출처=장예원 SNS

본인을 골프 초보로 소개하기는 했지만 **장예원의 라운딩 영상을 보면 그녀의 골프 실력이 취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와 깔끔한 퍼팅**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키죠.



장예원의 골프웨어. 출처=장예원 SNS

놀라운 퍼팅 실력과 더불어 다채로운 골프웨어도 화제입니다.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해줄 파스텔톤의 깔끔한 셋업부터 상큼한 테니스 스커트까지 캐주얼한 필드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골프계의 패셔니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GQ GOLF’와 함께 화보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화보 촬영에서 밝힌 그녀의 골프 이야기를 짧게 들어볼까요?

|



장예원의 GQ GOLF 화보. 출처=GQ GOLF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아나운서가 되고 나니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없었어요.
취미도 일, 특기도 일. 그런데 골프를 한 뒤로 다시 잘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잘하고 싶고, 집중해서 도전해보고 싶고...
저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대개의 스포츠는 겨루는 상대가 있는데 골프는 오롯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공이 잘 안 맞는다? 내 잘못이죠.
그날 라운드가 잘됐다? 내 컨디션이 좋았던 거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함께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골프인 것 같아요.
그 작은 공을 홀 안에 넣는 여정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화합해 즐길 수 있죠.”

장예원 'GQ GOLF' 인터뷰

‘GQ GOLF’와의 인터뷰를 통해 **골프가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는 장예원**은 “골프는 오롯이 나와
싸움”이라며 열정으로 가득 찬 눈을 반짝였습니다. 골프라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장예원이 ‘골프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예원의 다채로운 활약은 채널 A ‘슈퍼 DNA 피는 못 속여’, tvN STORY ‘벌거벗은 한국사’, Mnet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베러’, 국회방송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 史’, 네이버 NOW ‘장스트릿’ 등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예원 프로필 ▼

 <p>SM CULTURE & CON</p>	<p>SM Culture&Contents</p> <p>SM Culture&Contents는 연기자 MC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예능/TV프로그램 제작사업, 종합광고대행 사업, MICE, 호텔예약 등의 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p> <p>www.smcultureandcontents.com</p>
---	--

김민아_필드에서도,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빛나는 그녀



골프가 취미인 김민아. 출처=김민아 SNS

장예원에 이어 **김민아** 역시 **골프에 대한 애정을 과시합니다.** 지난해 10 월, 3 년 만에 다시 골프를 시작했다는 김민아는 **한겨울에도 라운딩에 나서며 골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평소 김민아는 **개인 SNS** 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 편하게 라운딩 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 중인 김민아. 출처=김민아 SNS

필드 위의 김민아가 시원한 골프 실력을 자랑했다면 **이 곳에서의 김민아는 다른 온도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민아. 출처=SM C&C

평소 동물 사랑이 남달랐던 김민아는 **유기견·유기묘 보호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마음이 맞는 팬들과 함께 보호소에 방문하며 **‘같이의 가치’를 발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민아. 출처=SM C&C

김민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내내 싱그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동물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 쏟았는데요. 동물들도 그녀의 애정을 느꼈는지 김민아 곁을 계속 맴돌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김민아는 본인이 주는 사랑보다 동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많다고 말하며 보호소 봉사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아의 다채로운 활약은 KBS Joy '이십세기 히트송', MBN '국대는 국대다' 등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민아 프로필 ▼

	<p>SM Culture&Contents</p> <p>SM Culture&Contents는 연기자 MC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예능/TV프로그램 제작사업, 종합광고대행 사업, MICE, 호텔예약 등의 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p> <p>www.smcultureandcontents.com</p>
---	--



박선영_선영아씨의 왼손은 거들 뿐

취미 생활로 농구를 하는 주인공은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지적이고 단아한 이미지를 지닌 박선영이 다소 역동적인 스포츠로 손꼽히는 농구를 하는 모습이 잘 연상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JTBC ‘언니들이 똘다 - 마녀체력 농구부’를 통해 처음 농구에 도전한 박선영은 불꽃 튀는 승부욕과 끈기로 화끈한 반전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JTBC ‘언니들이 똘다 - 마녀체력 농구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선영. 출처=SM C&C

방송 첫 회부터 열의에 가득 찬 모습으로 농구 에이스를 꿈꾸던 박선영은 직접 구매한 농구용품으로 철저한 준비성을 어필했습니다. 실전 경기에서는 코트 위를 장악하며 놀라운 몰입력을 보여줬죠.



JTBC '언니들이 된다 - 마녀체력 농구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선영. 출처=SM C&C

하지만 첫 평가전에서 4 대 37 로 완패를 당하면서 '위치스(마녀체력 농구부의 팀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박선영을 비롯한 팀 '위치스' 멤버들은 심기일전하여 농구의 A 부터 Z 까지 차근차근 배웠고 녹화 외 개인 시간에도 강도 높은 훈련에 참여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JTBC '언니들이 된다 - 마녀체력 농구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선영. 출처=SM C&C

멤버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 열정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덕분에 박선영의 농구 실력 역시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슛에 대한 두려움으로 골대 앞에만 서면 망설이던 박선영은 지난 8 회에서 마침내 그 두려움을 극복해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멤버들 중 유일하게 골을 넣지 못해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페이스를 유지한 그녀의 악바리 근성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 나왔죠.




JTBC '언니들이 똠다 - 마녀체력 농구부'에서 인터뷰를 하는 박선영. 출처=SM C&C

첫 방송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이겨내고자 강제성을 띠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며 농구 도전 계기를 밝힌 박선영은 본인의 장점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강''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단단한 마음가짐과 뜨거운 패기로 일취월장한 농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농구를 통해 일상의 새로운 활력을 찾은 박선영이 앞으로 팀 '위치스'와 함께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영의 다채로운 활약은 채널 S '신과 함께 시즌 3', JTBC '언니들이 똠다 - 마녀체력 농구부', MBN 'The Origin - A, B, Or What?', FLO '지금 당신의 음악, 박선영입니다', 멜론 스테이션 '영화&' 등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선영 프로필 ▼

	<p>SM Culture&Contents</p> <p>SM Culture&Contents는 연기자 MC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예능/TV프로그램 제작사업, 종합광고대행 사업, MICE, 호텔예약 등의 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p> <p>www.smcultureandcontents.com</p>
---	--

...

지금까지 C&C 여자 예능인들의 다채로운 취미생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과 열정을 오롯이 쏟을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즐거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해성, 장예원, 김민아, 박선영처럼
슬기로운 취미생활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득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글. 여행사업부문 투어익스프레스팀 장세리

투어익스프레스팀이 직접 보낸 **신혼여행 사례 모아봤 SM!**

본격적인 봄 웨딩 시즌이 다가오면서 웨딩업계와 함께 허니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해제돼 신혼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늘었는데요.** 기존 봄 웨딩 성수기 시즌과 코로나로 미뤄졌던 해외 신혼여행 물량이 맞물려 **여행 시장이 다시 돌아오르는 중입니다.**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신호탄으로 여행업계는 빠르게 회복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공사는 5월부터 국제선 노선을 대폭 증편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사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 모두 국제선 운항 횟수를 증편했고 올해 내 50%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신혼여행을 차선책으로 택했던 신혼부부들과 곧 허니문을 떠나는 예비부부들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행사업부문 투어익스프레스팀에도 허니문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짜여진 패키지 여행상품보다 내가 원하는 일정, 예산, 여행 스타일 등에 맞춰 '우리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이 인기를 끄는 편입니다.

SM C&C 투어익스프레스팀에 따르면 최근 신혼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은 하와이, 몰디브, 유럽, 칸쿤, 괌, 발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곳은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하와이인데요. 획일화된 상품성 여행이 아닌 맞춤형여행에 강점을 갖고 있는 투어익스프레스팀을 통해 실제 예약이 진행된 하와이 허니문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허니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사례들을 주목해주세요!



하와이 셰라톤 와이키키 호텔. 출처=셰라톤 와이키키 공식 홈페이지



셰라톤 와이키키 해변 근처 쇼핑복합시설. 출처=SM C&C

[하와이]

‘하니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신혼여행의 메카입니다. 휴양, 액티비티, 쇼핑 등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비해 연중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언제 떠나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항공

하와이 직항편: 대한항공 월~수, 금~일, 아시아나항공 수·금·일 운항 중

입출국규정

-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백신접종증명서 추가 제출 (COOV 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 (출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증명서 필요

<p>하니문 특전 (공통)</p>	<p style="text-align: center;">투어익스프레스 자체제작 브로셔* / 트롤리** 티켓 4매 / 환영레이쿠쿠이***</p> <p style="text-align: center;">*투어익스프레스팀이 직접 사전답사 후 하와이 여행 꿀팁을 담아 제작한 가이드북</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 유명 관광지를 도는 2층 관광버스 / 티켓 1매당 편도로 이용 가능 / 와이키키 쇼핑물 거리~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순환</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식 송영</p>
------------------------	--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출처=SM C&C

[사례 1 _ 관광보다는 좋은 호텔을 중시한 신혼부부]

| 일정: 2022-07-31 ~ 2022-08-05 (5박 7일)

| 항공: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 호텔: 웨라톤 와이키키 오션뷰 3박 / 로얄 하와이안 오션뷰 2박

| 옵션: 2일 가이드 투어 포함 / 공항 왕복 픽업&드랍 / 전 일정 호텔 조식 포함 / 새우트럭 식사 1회 포함 / ESTA 미국전자비자 2인 포함
2일차 (등부투어 + PCC) / 3일차 (파인애플 농장 + 와이켈레 아울렛)

투어익스프레스팀 허니문 담당자

A 고객님의 웨라톤 호텔로 5박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관광이 아닌 호텔에서의 휴식을 중요시하는 고객님의**라는 것을 확인했고 웨라톤 호텔과 로얄 하와이안 호텔로 분박을 추천드렸습니다. 고풍스럽고 안티한 인테리어의 로얄 하와이안 호텔은 특히 여성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호텔로 **호텔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길 원하시는 고객님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와이의 대표 먹거리로 유명한 하와이 오아후의 새우 요리 식사('새우 트럭'으로 불림)를 1회 추가해드렸습니다. **적당한 자유시간과 가이드 투어도 함께 원하셔서 하와이의 대표 명소를 관광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 일정으로 추천 드렸습니다.**



(윗줄) 로얄 하와이안 호텔 (아랫줄) 새우 트럭 식사, <쥬라기 공원>, <진주만> 등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쿠알로아 랜치.

출처=SM C&C

[사례 2 _ 초특급 호텔을 위한 신혼부부]

| 일정: 2022-05-02 ~ 2022-05-06 (4박 5일)
| 항공: 하와이안항공 이코노미석
| 호텔: 할레쿨라니 오션뷰
| 옵션: 공항 왕복 픽업&드랍 / 전 일정 호텔 조식 포함 / ESTA 미국전자비자 2인 포함

투어익스프레스팀 허니문 담당자

B 고객님의 코로나로 해외 허니문을 취소하셨다가 코로나 규정 완화로 긴급하게 다시 허니문을 진행하셨습니다. 허니문 장소를 정하지 못하셔서 격리도 없고 직항이 있는 하와이를 추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2, 3 일차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고자 하셨으나 비용이 부담되신다고 하셔서 왕복 송영으로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숙박의 경우, 1 차적으로 하와이 허니문의 성지 웨라톤 와이키키 호텔을 권했으나 해변가에 위치한 초특급 호텔을 원하셔서 할레쿨라니 호텔을 추천 드렸습니다.

[사례 3 _ 현지에서 진행되는 허니문 패키지에 합류하길 위한 신혼부부]

| 일정: 2022-06-11 ~ 2022-06-17 (6박 8일)
| 항공: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 호텔: 리츠칼튼 레지던스 와이키키 오션뷰 3박 / 트럼프 인터내셔널 와이키키 오션뷰 3박
| 옵션: 2일 가이드 투어 포함 / 공항 왕복 픽업&드랍 / 전 일정 호텔 조식 포함 / 새우트럭 식사 1회 포함 / 한식 식사 1회 포함 / ESTA 미국전자비자 2인 포함 → 1일차 (호놀룰루 시내관광 코스) / 2일차 (오아후 '스케치 아일랜드 투어')

투어익스프레스팀 허니문 담당자

C 고객님의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처음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하와이의 매력을 굵직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긴 일정으로 추천 드렸습니다. 4일은 자유일정을 원하셨고 2일은 가이드 투어를 원하셨던 고객이었습니다. 하와이 터치다운 느낌으로 시내 관광을 1 일차 일정으로 짰고 2 일차에는 맛집 투어와 쇼핑, 섬 일주까지 3 가지의 스타일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스케치 아일랜드 투어' 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에 더해 새우 트럭 식사, 다른 고객보다 긴 일정을 소화할 고객을 위한 한식 식사를 한 번씩 일정에 추가했습니다.

투어익스프레스팀에서 소개하는 해외 허니문 TOP 3 중,
하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몰디브**와 **유럽**입니다.



몰디브. 출처=pexels

[몰디브]

만년 1위 신혼여행지인 하와이도 다른 곳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인기 해외 허니문 여행지 1위를 차지한 곳은 다름 아닌 몰디브인데요.

몰디브는 2020년 발 빠르게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세계적 휴양지가 됐습니다.

몰디브는 ‘하나의 섬에 단 하나의 리조트’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깨끗하고 프라이빗한 휴양지의 대표격이 되었죠.

항공

△에미레이트항공(두바이 경유) △카타르항공(도하 경유)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 경유) △에티하드항공(아부다비 경유) 편이 있습니다.

기존 운항하던 대한항공 몰디브 직항편이 현재는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몰디브까지 비행시간은 총 15~20시간입니다.

입출국규정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PCR 결과 제출 불필요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결과 요구 가능)



이탈리아 트레비 분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웅프라우요흐에서 스위스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클라이네 사이텍(Kleine Scheidegg)까지 이어지는
웅프라우 철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마르스 광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럽]

청춘들의 배낭여행과 일반 패키지 여행이 주를 이뤘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유럽은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긴 비행시간과 값비싼 항공권으로 인해 ‘허니문 아니면 쉽게 가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도 한몫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방법, 한 나라에 오래 머물며 그 나라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방법 등 신혼부부가 유럽 허니문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항공

이탈리아: 6월 18일부터 아시아나 항공 직항편 화, 토 운항 예정
스위스: 에미레이트항공(두바이 경유), 핀에어(헬싱키 경유), 에티하드항공(아부다비 경유) 편 이용
(대한항공 스위스 직항편 현재 운항 중단) / 총 17~25시간 정도 소요
프랑스: 대한항공 월·수·금·토 (6월 한달 동안), 에어프랑스 월·화·목·금·토 운항

입출국규정

이탈리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영문)/그린패스(EU Digital COVID Certificate)/코로나19 완치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이탈리아 입국 72시간전 실시한 PCR 검사 또는 입국 48시간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중 1가지 지참 시 격리면제
-백신 접종 이후 9개월 경과 시 백신접종증명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스위스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프랑스

-백신접종완료 후 7일 경과 9개월 이내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백신 접종 이후 9개월 경과 시 부스터샷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편 및 출입국 규정은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 귀국 시 귀국 전 48 시간 이내 코로나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해외로 떠날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됐고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지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어익스프레스에서 당신이 꿈꾸는 허니문 로망을 실현해보세요.
방 한구석에 밀어났던 여권을 다시 찾아보며 여행 생각이 간절해지는 이때,
투어익스프레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투어익스프레스 허니문 문의
T. 02-2022-6500 / T. 02-2022-6400
tourexpress@smtown.com

 카카오톡 ID : 투어익스프레스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SM C&C LETTER 5월호부터 12월호까지 [SM PICK]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이 소개됩니다.

SM C&C 광고사업부문 킬리언(Tillion)팀이 매달 MZ세대가 주목하는 앱을 선정해 해당 앱의 특징, 주요 타깃층, 헤이폴이 분석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헤이폴(heypoll) : SM C&C가 운영하는 놀면서 하는 초간단 앱테크 플랫폼. 설문조사, 투표, 퀴즈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받는다.

🌾 heypoll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 1탄 🌾

새로운 식문화
배달의민족 서비스 편



편리함은 기본,
생활 속 문화로
자리잡다



10여년 전만 해도 이사를 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 귀찮을 때면 종종 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할 때마다 주소와 음식 종류, 요구사항 등을 직접 말하곤 했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패턴에 변화가 찾아온 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이 론칭된 시점(2010년 6월)일 것입니다.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앱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 중심의 차별화 된 e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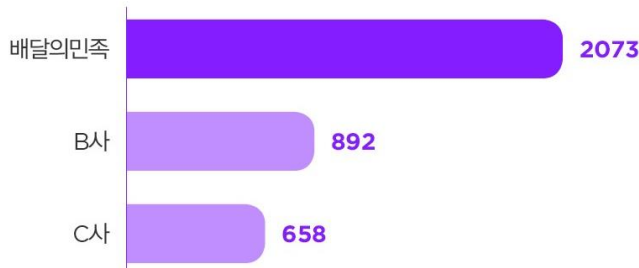
'배달의민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B급 마케팅, MZ세대를 사로잡다!

'배달의민족' 앱은 개발 단계부터 배달 음식 주문 빈도가 높은 20~30대를 코어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젊은 연령층을 코어 타겟으로 삼았기에 이들의 문화를 탐구하고 고민했습니다. 'B급 마케팅'으로 불리는 키치한 콘텐츠 기반으로 이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굿즈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MZ세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주문 앱 월간 이용자 수(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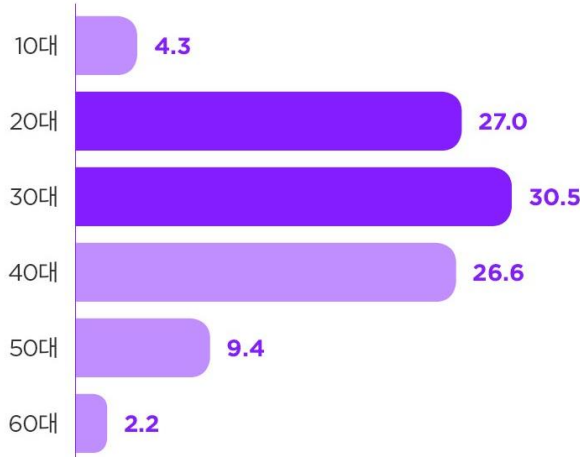
단위 : 만 명 / 출처 : 2022년 1월 MAU 기준(모바일인덱스)



'배달의민족'은 2014년 온에어 된 TV 광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통해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앱 점유율 1위 등극으로 이어졌죠. 2022년 1월 기준 배달앱 주문 월간 이용자 수인 MAU(Monthly Active User)를 보면 '배달의민족'은 2073만명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B사, C사 유저 수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이용자 분포

단위 : % / 출처 : 2022년 4월 이용자수(모바일인덱스)



'배달의민족' 앱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30.5%로 가장 많았고 20대(27.0%), 40대(26.5%)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기 '배달의민족' 앱 런칭 때 코어 타겟으로 설정했던 20~30대 젊은 연령층 이용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MZ세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민' 사용률을 꾸준히 높이는 세 가지 이유는?

배달 앱 시장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배달의민족' 서비스의 사용률이 꾸준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MZ세대의 관심을 얻기 위해 B급 마케팅으로 불리는 키치한 콘텐츠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토리를 담아 배달의민족을 알린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배민 신춘문예' '배달용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캠페인과 마케팅을 통해 '배달의민족' 서비스만의 독특한 개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습니다. 헤이폴 유저 1012명을 대상으로 '배달 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배달의민족'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답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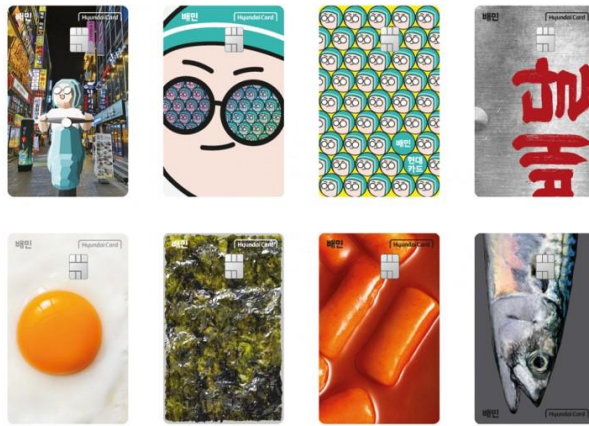
두 번째는 사용자 감성을 고려한 UI/UX 경험을 제공한 점입니다. 단순히 음식 사진 이미지와 가격 등이 노출되고 있는 타 앱들과 달리, 음식 주문 앱 성격에 맞게 입맛을 돋우는 음식 일러스트 형태의 아이콘을 도입했고 배달의민족 한나체 폰트를 적용했습니다. 아이콘과 폰트를 통해 마치 옛날 간판을 떠올리는 레트로 감성을 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문/결제 버튼이 사용자에게 잘 노출돼 메뉴 선택 및 주문까지 매끄러운 유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등록된 음식점이 타 서비스 업체보다 월등히 많아 메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메뉴 선택의 폭이 넓기에 유저들은 선호하는 음식점 혹은 메뉴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적습니다.

유저 Lock-in / 유저 확대 키워드 : “Family와 함께”

‘배달의민족’은 유저 이용률을 계속해서 유지함과 동시에 MZ세대 외 다른 연령대까지 유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카드와 콜라보를 진행해 ‘배민 현대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배민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3%를 배민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국내 최초의 배달 앱 전용 카드인데요, ‘배달의민족’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이 카드는 출시 8개월 만에 10만장 이상 발급됐습니다.



‘배달의민족’ 서비스가 왜 현대카드와 콜라보를 진행한 걸까요? 앱 론칭 초기부터 20~30대를 코어 타겟으로 서비스와 마케팅을 해왔으나 10대 혹은 40대 이상 연령층까지 흡수하려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저 수 확대를 위해 ‘배달의민족’ 서비스가 접근한 방향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배달의민족’ 서비스에 Lock-in 시켜 타 배달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저 수를 확대하는 쪽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이용하고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현대카드와 콜라보를 진행했죠. 이는 예전 통신사 가족결합할인 혜택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배달의민족’ 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 서비스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 중!

'배달의민족'은 기존 배달 음식 서비스 외에도 지난 2019년 'B마트'를 론칭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에서 운영하는 쇼핑물 서비스 'B마트'는 배달음식처럼 제품을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수천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요, 소비자는 마트를 방문해 제품이 어디 있는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앱에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으로 찾고 주문 후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배달'을 이용하면 10분~1시간 내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배달'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헤이폴 유저 1012명을 대상으로 'B마트'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해 보니 이용 경험률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경험자를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0.4%로 가장 높았고, 30대(24.1%), 50대(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있는 연령층에서 장보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만큼 기존 배달 음식 주문을 넘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에 B마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마트' 이용 경험

N = 1,012명 헤이폴 조사, 단위 : %



배달 앱 시장의 미래는?

배달 앱 시장은 코로나19 라는 큰 이벤트로 인해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 된 지금, 배달 앱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1인 가구 수, 익숙함과 편리함을 경험한 유저들 덕분에 일정 기간 사용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SM C&C 광고사업부 서베이 플랫폼 '헤이폴(heypoll)'에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앱 중 카테고리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앱을 선정해 리뷰한 내용입니다. 헤이폴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에 기반해 작성했습니다.

궁금해결 리워드앱
헤이폴





Wonderful Radio - SM C&C편 -

선배에게, 후배에게, 동기에게 띄우는 편지 받아봤SM!

'감사합니다'라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말하고 쓰시나요?
누군가와 의 대화를 담을 때나 메일을 마무리할 때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말의 농도가 진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5월을 맞아 이 다섯 글자에 진심을 짝짝 눌러 담았던 순간들을
SM C&C 구성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선배에게, 후배에게, 동기에게, 회사 안팎에서 만난 분에게
전하고 싶은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나 많았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채택됐는지, 사연의 주인공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합니다.
'회사 뉴스레터'라는 특별한 메시지에 담겼기에
평소에는 진부했던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한층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정리 PR팀 김서연



선배님, 광고에 입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령) 내가광고회사힘들다그랬잖아

Comment Share

안녕하세요,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를 지금 이 곳 SM C&C에 머물 수 있게 도와 주신 CM2팀 김나경 국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창 취업준비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 김나경 국장님은 미디어 플래닝 및 커뮤니케이션 과목의 선생님이셨습니다. 4개월 동안 국장님께 미디어플래닝 이론, 커뮤니케이션 기초 등을 배웠어요. 그동안 담당하셨던 광고주들의 이야기, MBTI에 따른 업무 성향을 재미있게 풀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저는 디지털 광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약 4년간 일하는 동안에도 선생님과 종종 안부 인사를 주고받곤 했어요.

선생님과 업무적인 지식과 일상생활 안부를 자연스레 주고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의 제 자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저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 SM C&C에서 좋은 사우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안해 주실만큼 저를 믿어 주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 제자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해주셨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엔 선생님과 한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입보일까봐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그 부담이 제게는 더욱 더 적응을 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닌 직급으로 부르는 게 어렵고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취업 준비, 삶의 태도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셨다면 지금은 회사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가끔 퇴근길에 함께 저녁 먹는 것도, 노는 얘기하는 것도 즐거운 CM2팀의 김나경 국장님께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국장님과 노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서 러브홀릭의 놀러와 신청할게요.



narae_0526님 외 82명이 좋아합니다
eunoia.lily 혼남 후배님
선물 인증샷!

입사 전 선생님께 드린 선물이예요.
후배 잘 됐다고 하시면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려주셨어요.



신청곡) 놀러와 - 러브홀릭

1:25



-1:50

1 Comment



김나경님(광고사업부 CM2팀) 5 hours ago

처음엔 학생과 선생님이로 만났지만 이제는 동료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해
00아 언제나 응원한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놀러와~~~



Add a Comment



밥 한 끼 해요!

작성자 CX1팀 유하나

Comment Share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저만 그런걸까요?) 누군가가 싫어지거나 싸워서 멀어진다기보다 세월이 풍화시키는 자연스러운 멀어짐에 익숙해지더라구요. 예전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말이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만남을 하기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걸 느껴요. 누군가에게 맞춰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꼭 그래야 하나?'라는 반문이 들기도 하죠. 회사에 200명이 훌쩍 넘는 직원들이 있지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고작 20명 안팎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서로 거리를 뒀다 하는 상황이 더해지다보니 누군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밥 같이 먹자'는 용기를 내주었을 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업무를 계기로 시작된 관계라면 고마움은 배가 되고요.

이렇게 마음을 전할 기회에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 고민을 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몇 번 연락 드렸을 뿐인데 제게 먼저 "식사 같이 하지"고 반갑게 제안해 주셨던 김은형 SM엔터테인먼트 그룹회계 유닛장님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다른 사업 부문들과 업무를 할 일이 많지 않은데요. 지난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계약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에 연락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아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서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업무 차 드린 연락이라 계약이 정리되고 나니 딱히 연락드릴 일이 없더라고요.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터라 얼굴을 봐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업무 종료 후 몇 주가 지난 뒤 식사하자고 따로 연락을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제안을 받고 기뻐한 것처럼 그 분도 이 메시지를 받고 잠시나마 미소 지으시길 바라요. 언제나 지금처럼 밝게 웃으시는 날이 계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식사 한번 해요!

신청곡은 제이레빗(J Rabbit)의 Happy Things입니다. 주변의 작은 인연이 소중한 인연이 된 것처럼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일들에서 행복을 찾는 노래예요. 이 곡 들으시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합니다.



1 Comment



김은형님(SM엔터테인먼트 그룹회계 Unit장) 5 hours ago
함께 밥 먹는 시간은 늘 즐거워요~ 곧 또 밥 한 끼 해요~!



Add a Comment



회사 사람들이랑 저렇게까지 친할 수가 있어?

작성자 Compliance팀 김경훈

Comment Share

안녕하세요. Compliance팀 김경훈입니다. 2019년 9월 SM C&C 여행사업부문에 입사를 한 후 인턴, 정규직, 휴직, 복직, 부서이동을 거쳐 현재 Compliance팀에 오기까지 많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11명의 동기, 첫 사수, 저를 다시 불러주신 팀장님과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시신 선배들, 새로운 팀에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신 그룹장님과 팀원분들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같음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가장 친한 두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렇게까지 친할 수가 있어?"라는 말에서 '회사 사람들'을 맡고 있는 여행 사업부문 스페셜이벤트팀 강다희님, PR팀 김서연님인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항상 낮부끄럽고 간지럽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1년 전 여행사업부문 최말단 막내 3명이었던 저희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고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답을 찾아 매일 머리를 맞대다가 친해졌습니다. 이 때를 생각해 보면 저조차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어두웠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가라앉기만 하는 자존감의 늪에 서서히 잠길 때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해줬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견뎌내기 힘든 상황을 버렸고 김경훈이라는 사람은 제법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 좀 더 성장했다는 것을 나에게, 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같은 날 연차를 내고 남이성으로 여행을 가고 벚꽃도 매년 함께 보는 저희들을 보며 회사 분들, 친구들, 가족들도 그저 신기해합니다.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축하할 일은 본인 일보다 더 격하게 축하해주고 속상한 일은 함께 물어주는 사이가 됐어요. 가족들 역시 잘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저의 성장을 함께 나누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사이, 편안한 공간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사이가 저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요. 저를 변화시켜주는 동력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신창곡은 Pink Sweat\$의 At my worst입니다. 가사처럼 제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를 많이 아껴주고 옆에 있어준 두 사람에게 이 곡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같은 날 연차를 내고 남이성에 놀러갔어요. (사진 왼쪽부터 PR팀 김서연, 스페셜이벤트팀 강다희, Compliance팀 김경훈)



커플 그림책을 맞춘 날 기념으로 거울 셀카를 찍었어요. (사진 왼쪽부터 강다희, 김경훈, 김서연)



신창곡 At my worst - Pink Sweat\$

1:25 -1:50



2 Comments



강다희님(여행사업부문 스페셜이벤트팀) 5 hours ago
동기사랑 나리사랑



김서연님(PR팀) 5 hours ago
"경훈으로 (넵다) 이행시 같게요! 경 : 경훈 사연 고마워요! / 훈 : 훈제오리 사줄게요!
성수 독도농원에서... (?)"



Add a Comment



여러분 덕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작성자 언론희보실 채지현

Comment Share

지난 3월 입사한 저는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인 마포구 상암동에 정을 붙이기 위해 하루 하루를 카메라에 기록 중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처럼 처음 뵈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 채지현입니다"라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중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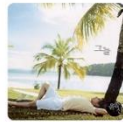
지인들이 "새 회사 적응은 잘 되고 있어?"라고 물으면 "뚝딱거리는 로봇 같다"고 말합니다. 평소엔 안 할 실수들을 왜 하는 건지 매일 퇴근 후 신세 한탄을 래퍼처럼 쏟아내죠. 이런 제가 상암동 사무실에 계속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언론희보실 최수진 실장님, 송학림 팀원님, 이현지 팀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두 달여 동안 함께한 식사 자리 속 피어난 밥정, 커피점은 제 회사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기쁨인 점심시간을 저희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기록한 사진들은 제 휴대폰 갤러리에 차곡차곡 쌓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팀원 여러분 덕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 곡이 생각납니다. 음식 노래의 고유명사격인 '윤중신의 팔빙수'를 팀원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팀원들과 함께 먹은 음식들이예요.



신청곡 팔빙수 - 윤중신

1:25



-1:50

3 Comments



최수진님(언론희보실 실장) 5 hours ago

코로나 시기에 입사해서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밥정 두둑히 쌓아가요!



송학림님(언론희보실) 5 hours ago

낮선 곳에서 적응하느라 고생 많아요. 오늘은 지현씨가 먹고 싶은 메뉴로 점심 먹어요~



이현지님(언론희보실) 5 hours ago

즐거운 점심시간을 지현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상암 골목골목을 누비는 맛집 탐방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현님 갤러리에 음식 사진 지분이 더 많아지도록 맛있는 음식 더 많이 먹으려 다녀요 ♡



Add a Comment



분명 날아오를 기회가 와 좀 늦더라도

익명 · 최애는나아들이될수없어

Comment

Share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부모님처럼 든든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구중서 여행사업부문 B2C 그룹장님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넘겨왔지만 이번 기회에는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인이 되면 진로 고민에서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로 고민은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더라고요. 책 '퇴근할까 퇴사할까'에 나오는 구절처럼, 저도 어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이 직장 내에서 자기계발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고 현재까지의 경력을 바탕으로 도약하고 싶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구 그룹장님과 이 이야기들로 눈물의 고민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후 구 그룹장님께서는 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너는 다 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게 답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그냥 옆에서 해주시는 응원의 한마디가 제 고민의 답이었어요. 원래 모든 문제의 답은 본인에게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답을 제가 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는 것이 직접 답을 내려주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텐데 그걸 해내주신 구 그룹장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맨정신에 쓰기에는 쑥스럽고 어려워서 술김에 이렇게 보냅니다. 휘청거릴 때마다 촛대레처럼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구 그룹장님께서 제게 해 주신 조언들이 가사에 잘 녹아든 것 같아서 이 곡을 신청합니다. '분명 날아오를 기회가 와 좀 늦더라도'라는 가사를 믿어보려고요!



신청곡 Slow Starter (With 이승기) - 윤종신

1:25

-1:50



1 Comment



구중서님(여행사업부문 B2C 그룹장) 5 hours ago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은 힘내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제가 더 고마울 따름이에요.



Add a Comment



김서연 사원님 보세요

작성자) PR팀 김서연

Comment Share

안녕하세요, PR팀 김서연입니다. 고마운 분들이 많지만 제일 처음 보관했던 메일의 주인공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 메일함엔 '영구보관'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19년 11월에 입사한 후 22년 4월 현재까지 3개의 메일이 보관돼 있어요. 회사와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저를 다시 회사로 이끌어주고, 주저않고 싶었던 저를 일으켜 준 고마운 분들의 흔적을 종종 열어보곤 합니다.

저는 SM C&C에 입사하기 전 약 4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취재에, 수습 리포트에, 실 새 없는 속보에, 늘 부족했던 잠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에 치였던 수습기자 때보다 SM C&C에서의 인턴 3개월이 더 길고 힘들었어요. 3분기 같았던 3개월이었습니다. 4년 경력을 포기하고 연봉까지 깎아서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 내게 맞는건지, 잘한 선택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때였어요.

요원하기만 했던 인턴 마지막 날 퇴근길, '김서연 사원님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료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 '시간은 늘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김서연 사원님의 인턴 3개월을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짧은 기간 김 사원님의 열정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이제까지는 장난이고 앞으로 죽을 각오로 한번 일해보자'는 진심을 짝짝 눌러 담은 메일이었어요.

'괜찮아 잘 될거야'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서연이 너였으면 4년 기자 경력 버리고 전혀 다른 직무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네 선택이 맞았다는 걸 네가 증명해 보이면 된다고, 실제로 증명해보이고 있지 않냐며 응원해 준 구중서 여행사업부문 B2C 그룹장님(a.k.a. 구름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구름장님께서 제가 힘들 때 맛있는 밥과 농담 섞인 응원으로 절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저는 헤드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일하다가 저 같은 후배를 만나면 구름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처럼 맛있는 밥과 농담 섞인 응원으로 격려해 주세요. 환대는 순환할 때 가치가 있는 거래요.

신청곡은 구름장님이 비 올 때마다 들으신다는 Sam Smith의 I'm Not The Only One입니다.



Compliance팀 김경훈님, 스페셜이벤트팀 강다희님과 함께 준비한 생일케이크와 이니셜이 각인된 애플워치 스트랩을 받고 기뻐하시는 구름장님의 모습이에요



신청곡 I'm Not The Only One - Sam Smith

1:25 -1:50



1 Comment



구중서님(여행사업부문 B2C 그룹장) 5 hours ago

더들 힘든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면 힘의 원천이 되어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보낸 서연님께 더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김서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Add a Comment



2022년 1분기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박태방(오늘) 신국희(CI1팀) 이장(CM1팀) 이하늘(TC1팀)
박상기(연기자매니지먼트3팀) 유현채(MC매니지먼트1팀) 송유리(콘텐츠기획제작팀)
허아빈(콘텐츠기획제작팀) 박정희(재무팀) 조승혜(경영기획팀) 김은성(법인영업팀)

[+ 자세히 보기](#)

2022년 1분기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박태방

광고사업Unit | 오늘

빅클라이언트 그랜드 PT 및
캠페인 제안의 완성도를 높임

“
‘상’이라기보단 더 힘내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장

광고사업Unit | CM팀

빅클라이언트 자회사의
미디어 AOR 광고주 개발

“
함께 업무한 소피아 예지 신해 희스
윤정 현민 감사합니다! 우리도,
V&A도, 모두 대박나길 바랍니다!
”

신국희

광고사업Unit | C팀

경쟁PT 수주의 핵심 역할 담당

“
우수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능력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늘 여러분과 광고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이하늘

광고사업Unit | TC팀

빅클라이언트 그랜드PT 수주에 공헌 /
신규 캠페인의 성공적 런칭 /
캠페인 광고 제작에 역량 발휘

“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되겠습니다 :)
”

박상기

매니지먼트부문 |
연기자매니지먼트3팀

연기자 스케줄/계약/현장 관리를
우수하게 실행

“
저를 여기까지 잘 이끌어주신 우성진
본부장님과 이준용 팀장님, 항상 마음
속에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기자매니지먼트본부 화이팅!

”

송유리

STUDIO부문 | 콘텐츠기획제작팀

신규 브랜드 콘텐츠 IP
<꼼꼼한 체험단> 메인연출을 맡아
원활한 업무 진행

“
지난해 함께 고생한 팀원들이 있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잘 부탁
드립니다 :)

”

유현채

매니지먼트부문 |
MC매니지먼트팀(1본부/2실)

아티스트 전현무 담당 매니저로서
업무에 대한 탁월한 수행력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늘 응원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김준영 실장님과 한재상
팀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사와
아티스트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

허아빈

STUDIO부문 | 콘텐츠기획제작팀

SM C&C 오리지널 리얼리티 콘텐츠를
전담하며 현장업무와 편집업무 모두
훌륭히 소화함

“
우수사원의 영광을 콘텐츠기획제작팀
선후배님께 돌립니다!
벌써 5월이 되었는데 몸 건강히 남은
2022년도 잘 지내보아요 ♥

”

박정희

BU/직할 | 재무팀

제42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준비에 기여

“
늘 응원해주는 팀원들이 있어 1분기 잘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즐겁게 보내요!
”

조승혜

BU/직할 | 경영기획팀

광고사업의 실시간 실적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 지원으로 최대 성과에 기여

“
든든한 그룹장님, 팀장님, 저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는 팀원들, 그리고 항상 번거로운 요청에도 기꺼이 협조해 주시는 모든 구성원분들 덕분입니다♥ 올해도 다같이 힘내보아요! 감사합니다!
”

김은성

여행사업Unit | 법인영업팀

대형 고객사 유치 및 팀내 프로젝트 (CRS도입 및 회사소개서 리뉴얼) 지원, 제휴사 지원업무 및 CS관리

“
저희 법인영업팀 팀원들 대표해서 받은 상이어서 더 기쁩니다!
날씨 좋은 날 푸르른 서울숲에서 맛있는 것 먹고 서로 격려하며 2022년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호 Best 3 다시 보기



ADVERTISING

“SM C&C 대상 수상!”
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 엿보기

[+ 자세히 보기](#)



MANAGEMENT

'터키즈 온 더 블럭' 있는
이용진의 2022년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 궁금해?

[+ 자세히 보기](#)



SM INSIDE

SM인들의 옷과 음악에 담긴
봄을 알아봤SM
(Feat. OOTD, 플레이리스트)

[+ 자세히 보기](#)



뉴스레터를 새롭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12층-14층 | 발행인: 김동준, 남궁철
© SM Culture&Contents, All rights reserved.

PDF 다운받기